협회 소식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13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1 · 11 대책' 이후 최근 주택 시장 동향과 문학진 · 장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민간 택지 분양 원가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민간 건설 업체가 전체 사업 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했지만 알박기나 토지주의 매도 거부로 잔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부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주택공사 · 토지공사 · 지자체 등 공공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한 1 · 11 대책과 관련해 민간 택지의 분양 원가 공개 제고와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국민 주택 규모 이하에만 적용하는 등의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인 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기한 완화, 실수요자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등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부동산 1 · 11 대책에 대해 업계와 협력해 협회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고,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와 신규 분양 주택의 취 · 등록세 비과세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한주택보증 관련 실무위원회장으로는 삼성물산 김명곤 상무, 열린공기업위원회장으로 풍림산업 한문혁 이사로 각각 교체했고, 운영홍보위원회 부위원장에 두산산업개발 진형우 상무, 벽산건설 윤기열 전무를 추가 선임했으며, 감사에는 신성건설 정인철 부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제도 개선 신고방 우수 제안자 선정 포상

협회는 지난 1월 30일, 협회 회장실에서 주택 관련 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시상에서 최우수상은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는 공동 주택의 단지 내 세대 수에 따라 도로 폭을 규제하고 있으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 단지의 실정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낸 대림산업 송태교 과장이, 금상은 등록 사업자가 특수목적 회사(SPC)에 출자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 건설 실적을 당해 등록 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한 포스코건설 이상록 차장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공급자와 소비자가 주택 관련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협회 홈페이지 내에 '제도개선 신고방' 을 개설해 운영해왔으며,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포상해오고 있다.

회원사 소식

건영 사장 노태욱 씨, 부사장 구본엽 씨

LIG그룹에 인수된 건영이 경영진을 새로 선임하고 회사명도 'LIG건영' 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영은 5일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전 신세계건설 사장 노태욱(57) 씨, 부사장에는 구자원 전 LIG그룹 명예 회장의 2남인 구본엽(35) 씨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LG건설(현 GS건설) 등을 거쳐 신세계건설 대표 등을 역임했다.

구 부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LG상사, LIG그룹 계열사인 PRC코리아 상무 등을 거쳤다. 건영은 전문 경영인과 오너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경남기업 사장 안순철 씨

경남기업이 안순철(56 · 사진) 전 대림산업 전무를 영업 및 개발 부문 총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안 사장은 현대건설을 거쳐 지난 1980년 대림산업에 입사한 뒤 건축사업부장, 건축사업본부 상무, 전무 등을 역임했다. 경남기업은 또 송인권 대전도시개발공사 경영총괄본부장을 개발사업 임원(상무)으로 영입했다.

한진중공업 부회장 김정웅 씨, 최재범 씨

김정웅 부회장 최재범 부회장 이강록 사장

한진중공업그룹은 김정웅 건설부문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최재범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건설 부문 부회장으로 영입하는 내용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강록 한국종합기술 사장은 건설 부문 사장으로 옮기고, 박규원 조선 부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64명이 승진 또는 신규 임용됐다. 이번 인사는 2006년 4월 그룹이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해 독자 그룹으로 출범한 후 첫 그룹 규모 인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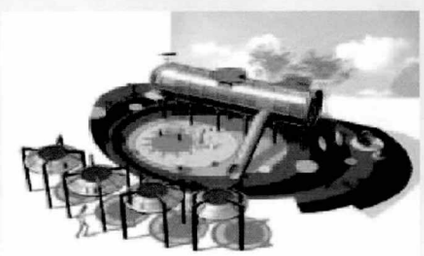
신동아건설, 파밀리에 BI 교체

신동아건설(대표이사 신광웅)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파밀리에' 가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다. 새롭게 바뀌는 파밀리에 BI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모티브로, 파밀리에(Familie)의

이니셜 'F'를 안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디자인된 로고 타입은 심벌 마크와 조합해 따뜻하고 품격 있는 가족 문화 공간을 상징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신뢰를 상징하는 오션블루 컬러를 도입해 '창조와 혁신'의 기업 이념도 함께 아우르고 있다.

독일어로 '가족'을 의미하는 '파밀리에'는 아파트 공간을 통한 가족애를 추구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개인화되고 단절되어가는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의 참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정과 소중함을 지켜주는 공간으로 주택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신동아건설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번 파밀리에 신규 BI는 어머니와 아이의 포옹을 유려한 선과 평면으로 형상화시켜 가족 간의 사랑을 가장 보편적인 공감대로 풀어내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시켰다.

대우건설, '사이언스파크' 놀이터 디자인 등록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창규)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과학 학습 공간으로 특화한 '사이언스파크'를 개발, 디자인 등록을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이언스파크는 어린이들의 감성·인성 및 학습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개발한 것으로, 회사 측은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화성 신동탄 푸르지오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사이언스파크는 우주 왕복선 모양을 형상화한 스페이스 셔틀 조합 놀이대, 사계절의 별자리가 표현된 휴식 공간인 파고라 등으로 구성되며, 바닥은 태양계를 형상화한 그래픽으로 처리했다고 대우건설 관계자가 설명했다. 또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시설 조명을 적용, 대체 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시범 단지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 단점을 보완, 향후 분양·입주 예정인 단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임직원 자녀 스키 캠프 160여 명 참석 성황!

쌍용건설(회장 김석준)이 지난 1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강원도 횡성군 성우리조트 스키장에서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꾸러기 스키 캠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본사와 현장의 임직원 자녀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이한 직원 자녀들의 체험 학습과 단체 생활 교육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가족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에는 역사 및 자연 체험, 래프팅, 별자리 탐사 등을 주제로 한 캠프를, 겨울 방학에는 스키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실시해 해마다 참가자가 늘어나는 등 직원 가족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남원시 운교마을과 농촌사랑 1社 1村 자매 결연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과 남원시 운교마을이 '1社 1村' 자매 결연을 맺었다.

현대건설과 운교마을은 지난 2월 8일, 남원시 대산면 운교마을 회관에서 '1社 1村' 협약식을 갖고 도농의 거리를 뛰어넘어 기업과 농촌이 이웃사촌이 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과 운교마을 진상호 주민 대표는 협정서에 사인하고 결연패를 교환했으며, 협약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직원 등 150여 명은 새 이웃이 생긴 것을 자축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은 TV와 메디컬 안락 의자 등 마을 회관에 필요한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운교마을은 마을 특산품인 600kg 상당의 콩을 건네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충북 영동 모리마을과 울산 강양어촌계 등 농어촌 마을과 '1社 1村' 자매 결연 협정을 맺는 한편, 전국 120여 개 현장을 중심으로 '1현장 1이웃'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친밀감을 돈독히 하고, 농촌과 기업의 상호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상생 나눔의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2개층 높이의 발코니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 평면 개발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정중)이 2차원적인 평면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직적 공간 활용이 가능한 3차원 평면인 '그린 아트리움(Green Atrium)하우스'를 개발했다.

현대산업개발 평면개발연구실이 개발한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는 수직적 공간 개념을 발코니에 도입한 평면으로, 그린 아트리움은 '푸른 안뜰'을 의미한다.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에는 2개층 높이의 테라스가 조성돼 일부 복층형 세대나 펜트하우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개방감과 공간감을 모든 층의 거실이나 부엌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2개층 높이의 발코니는 세대별 일조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대를 블록처럼 끼워 쌓은 듯이 배치해 아파트 외관까지도 특화할 수 있다. 그린 아트리움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스파, 정원, 취미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천장고에서 어려웠던 높이 2m 이상의 나무까지 키울 수 있어 새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한편, 상품개발본부 최영택 부사장은 "기존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는 탑상형, 판상형 구분 없이 모든 층에 적용시킬 수 있어 향후 공급하는 I'PARK에 발전·적용시켜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면 개발로 I'PARK Style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